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구갑우**

이 글은, 2017년 11월 북한의 핵무력완성 선언 전후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구호처럼 등장했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인정투쟁의 국내적 토대 마련과 연관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2월 전략국가 선포를 전후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에서 체계화되었다.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조선녀성』,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김일성종학대학학보』 등의 비주류 매체에서 재체계화되었다. 결국,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9년 1월 1일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말을 통해 『로동신문』에서 생산하는 공식 담론이 되었다. 이후,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정권을 대표하는 시대담론으로 승격되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북한 특유의 유기체적 국가론에 기초하여 우리수령제일주의와 동의어가 된 상태다. 결론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북한판 한반도 두 국가론에 주는 함의를 언급한다.

주제어: 우리국가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수령제일주의, 전략국가,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녀성』,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김일성종학대학학보』

*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상범 박사, 국회미래연구원의 김태경 박사, 뉴스1의 최소망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물론 논문에 있을 오류는 필자의 몫이다. 심사자들이 질문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효과, 국가제일주의와 민족제일주의의 관계, 인정투쟁의 이론화 방식 등의 쟁점은 차후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24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문제 설정

북한도 언어를 매개로 구성되는 ‘담론국가’다. 어느 나라처럼, 북한의 국가가 생산하는 담론은 정치권력의 현재를 정당화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한 수행적(performative)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 담론의 생산과 관련하여 두 특이점이 있다. 첫째, 수령-당-대중을 한 몸으로 간주하는 북한 특유의 유기체적 국가론은, 국가와 사회의 미분화로 반(反)국가 담론의 생산을 원천 봉쇄한다. 둘째, 유기체적 국가론은 무생물인 국가를 마치 인간처럼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간주하게 한다. 수령에 대한 충성처럼, 감정은 수령-당-대중의 접합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정치적 담론 그 자체의 특이점도 있다. 북한은 그 어느 국가보다 ‘주의(主義)’가 붙은 담론을 과다 발명하고 있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김정은 시대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Kimilsungism-Kimjongilism)”(2012년 4월), “김정일애국주의(Kim Jong-il’s Patriotism)”(2012년 ?월),¹⁾ “인민대중제일주의(People-First Principle)”(2013년 1월), “자강력제일주의(Self-Development-First Principle)”(2016년 1월), “우리 국가

1) 김정일애국주의는 2012년 5월 12일 『로동신문』에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 기치 높이 내 나라” 기사에서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즈음 북한은 김정일애국주의 담론을 준비한 듯 보인다. 2010년 12월 북한의 사회과학원 출판사가 간행한 단행본, 최원철·리성환·박길성의 『철학연구론문집 14』는 “김정일애국주의란 무엇인가”, “조국변영의 위대한 기치 김정일애국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후기에는 “김정은동지”의 말,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입니다”가 인용되어 있다. 이 책의 서지사항이 틀리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2010년 언젠가의 생산물이다.

제일주의(Our State-First Principle)”(2017년 11월) 등의 ‘~주의담론’이 생산되었다.

이 주의들의 북한식 영어 번역은 각 주의들의 괄호에 표기한 것처럼, 서양어 *ism*과 원칙을 의미하는 *principle* 둘이다. 북한에서 주의는 “체계화된 정치적이론이나 견해”로 정의된다. 주의가 “뒤붙이”로 쓰일 때,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상과 그를 구현한 활동원칙”이다.²⁾ 따라서 북한에서 주의와 원칙의 쓰임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³⁾ 그러나 북한의 영어 번역에서 *ism*과 *principle* 사이에는 위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출판물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다.⁴⁾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혁명사상” 또는 “지도이념”이라면,⁵⁾ 인민대중제일주의

-
- 2)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032쪽.
 - 3) 19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principle*과 *ism*이 주의로 번역되었고, 이후 *ism*의 번역어로 주의가 채택되었다.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비교일본학』, 제28집(2013), 217~239쪽.
 - 4) 김현환,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입문』(평양: 평양출판사, 2016), 8쪽.
 - 5) 김일성-김정일주의는, 1924년 1월 소련의 지도자 레닌 사망 직후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이 레닌을 이념적 박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레닌주의(Leninism)’를 떠올리게 한다. 스탈린은 “레닌주의의 기초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지도이념(guiding ideology)’으로 만든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스주의”로 정의했다. J.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 *Works 6*(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7). 전임 지도자의 이름에 주의를 붙여, 현재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김일성주의는 레닌주의와 달리 김일성 생전인 1974년 후계자 김정일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정일 사후 후계자 김정은에 의해 김일성주의에 김정일주의가 덧붙여진 사실상 텅 빈 기호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성과에 기초하지만 그 철학의 물질 중심의 한계를 넘는

는 혁명사상을 관통하는 “기본이념” 또는 “근본이념”이다.⁶⁾ 2013년 3월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경제·핵 병진노선을 시작하기 전인 2013년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만들고 싶은 현실을 담은 수행적 담론으로 제시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동의어이자 부분집합이다.

이 글의 주목 이념은, 김정은 집권 6년차인 2017년 11월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다.⁷⁾ 기존연구에서 추출한 두 쟁점이 있다. 첫째, 출현 시점이다. 대부분의 연구는,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미국 본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정의된다. 김현환,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입문』(평양: 평양출판사, 2016), 12~13쪽;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2013). 중국공산당도 모택동 생전인 1945년 4월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했다. 남종호, “중국 정치 이데올로기 변화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1호(2009). 모택동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중국화를 의미하는 ‘모택동주의’로 승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모택동사상이 언급된 직후인 1948년 모택동 스스로 모택동주의라는 용어를 거부했다고 한다. 中央档案馆党史资料研究室, “介绍毛泽东同志有关理论学习问题的几件手稿,” 『人民日报』, 1979年 12月 25日; 张万年·迟浩田, “功绩显赫铭天地 德高望重昭日月,” 『人民日报』, 2000年 2月 1日. 중국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으로 언급한다. 『중국공산당 규약』(북경: 민족출판사, 2022). 모택동주의에 대한 『人民日报』 자료를 찾아 준 인천대학교 안치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 6)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이해』(평양: 평양출판사, 2016);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2021).
- 7) 북한의 맞춤법은 ‘우리’와 ‘국가제일주의’를 붙여 쓰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북한 문건을 직접 인용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제일주의로 표기한다.
- 8) 표윤신·허재영,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문화와 정치』, 제9호 4권(2022);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현대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실험을 한 직후인 11월 30일 『로동신문』 1면 사설에 우리나라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했다고 본다.⁹⁾ 그러나 우리나라제일주의는 핵무력 완성선언 10일 전인 2017년 11월 20일 『로동신문』에서 북한 특유의 ‘서사시적’ 기사인 “정론(政論)”에서 ‘던졌다’.¹⁰⁾ 미국이 국가파괴를 노리고 있다고 느끼는 시기에 국가발전의 추동력으로 정의한 “자력갱생”으로 만들어진 “주렁지는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를 “원수님” 김정은이 우리나라제일주의를 “실천”한 것으로 정리하면서였다. 즉, 우리나라제일주의의 최초 핵심 연관어는 자력갱생과 김정은이었다.

둘째, 우리나라제일주의가 과거 김정일 시대 주의담론 가운데 하나로 하나임을 호명하는 ‘우리’와 우선의 가치를 담은 ‘제일주의’와 같은 형태를 공유하는 김정일 시대의 ‘우리 민족제일주의(Our Nation-First Principle)’(1986년 7월)를 대체했는가다.¹¹⁾ 즉, 김정은 시대에 민족 우선

연구』, 제23호 1권(2020);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2020); 마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6호(2020);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색,” 『장신논단』, Vol. 51, No. 5(2019);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 4(2019).

9)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민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10) 박옥경,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북한 특유의 장르인 정론은, “예리한 정치적일반화나 형상적표현 그리고 주정토로서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입장을 강렬하게 표명하는 기사”로 정의된다. 『조선말대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983쪽. 이 정의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주정토로(主情吐露)”로, 북한 특유의 “사상감정”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11) 민족제일주의가 포함된 또 다른 조어인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1월 등장

에서 국가 우선으로 이행했느냐를 묻는다. 민족제일주의와 국가제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승’ 또는 ‘이행과 대체’ 또는 ‘그 사이’ 등의 세 해석이 경쟁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민족 개념에서 ‘한국인’을 배제한다면,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호명하는 정치적 주체는 동일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최초 구호로 등장했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하나의 이념처럼 체계화, 공식화되는 과정을 도구적이지만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¹²⁾ 2017년 11월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기사의 내용 가운데 그 단어만 등장했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201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서 체계화되고, 2018년 월간 대중잡지 『조선녀성』과 계간 학술지 『철학, 사회정치학연구』를 거쳐 계간 학술지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서 재체계화되고, 결국은 2019년 1월 김정은 신년사에서 공식화되면서 『로동신문』에서 전개되는 여정에 대한 탐색이다. 다음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우리수령제일주의’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는 북한 국가론의 계보학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우리수령제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

했다.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주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2017). 우리민족제일주의는 한반도의 통일과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 12) 도구적으로 계보학적 접근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그 기원에서부터 체계화, 공식화되는 역사까지를 목적론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 Foucault,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최순영, 『니체와 도덕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2), 56~64쪽.

담론 등장 초기에도 국가와 수령을 등치하는 씨앗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 글은 대내적, 대외적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위한 담론으로 북한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시했다고 읽으려 한다. 대외적 인정투쟁을 위한 국내적 토대 마련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생산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력(national power)’과 ‘국가능력(state capacity)’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이라는 국가의 물질적, 관념적 ‘힘’에 기반한 평화와 통일의 논리를 담게 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북한판 한반도 두 국가론에 주는 함의를 언급한다.

2. 북한 국가론의 계보학

1987년 발간된 북한의 『조선통사(하)』는 1926년 6월 김일성이 중국 길림성 화전현에 있는 독립군 학교인 화성의숙에 입학하면서 “혁명활동”을 시작했다고 쓰면서, 당시 그가 읽은 책으로 맑스(K. Marx)의 『공산당 선언』(1848년)과 레닌(V. Lenin)의 『국가와 혁명』(1917년)을 언급한다.¹³⁾ 김일성이 계급해방과 민족해방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우연히도 두 책에는, 맑스-레닌주의적 시각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북한적 국가론 형성과

13) 박득준·김적봉 엮음,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135쪽.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1920년대 중후반 맑스의 『공산당 선언』, 『자본론』, 『임금로동과 자본』, 레닌의 『국가와 혁명』, 『제국주의론』 등을 읽었다고 썼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정에서 참조점이 될 두 책은, 당시 다음과 같이 읽혔을 것이다.¹⁴⁾

첫째,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다. 『공산당 선언』에서 “현대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다. 『국가와 혁명』에 따르면, 계급적대의 산물인 국가는 자본의 임노동 착취를 위한 수단이다. 둘째,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시키고,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뒤엎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와 혁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혁명 이후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행한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한다고 하는 자본주의국가의 부르주아 독재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대조다.

셋째,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주장하듯, 파리코뮌에서 보여준 인민의 자치조직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의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높은 단계 사이의 과도기다.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서 폭력적 국가장치의 필요는 과도기에 불가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계급투쟁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내부의 적과의 싸우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요로 한다. 넷째, 사회주의국가는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계급을 단위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길을 가려 했다. 1920년대 후반 국제주의를 표방했지만 소련공산당이 위계의 정점에 위치한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이 기능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1924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들”에서 일국사회주의(socialism in one country)의 실현가능

14) “공산당 선언”, “고타강령 비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김재기 편역(서울: 거름, 1988); V. 레닌, 『국가와 혁명』, 김영철 옮김(서울: 논장, 1988) 참조.

을 언급한 상태에서, 『국가와 혁명』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들의 적대 관계에서 발생하는 군대를 포함한 물리력의 경쟁적 증대의 정당화를 위한 글로 읽힐 수 있었다. 다섯째, 『국가와 혁명』은 계급이 폐지되고 국가 주도로 생산력이 고도화되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 국가의 사멸을 예측한다.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 국가론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는 시점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이었다. 1955년 4월 김일성은 반제반 봉건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되었고, 북한이 “사회주의어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¹⁵⁾ 사회주의적 산업화 전략의 핵심은 “중공업의 선차적발전”이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국가 주도로 중공업 우선의 강행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출현이었다.¹⁶⁾ 1946년 8월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 이후,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협동화, 소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계획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사회주의적 발전국가였다. 1958년 8월 북한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전형적인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에 진입했다.

1961년 9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 개정된 당 규약에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반영하여, 당면목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최종목적으로 공산주의가 제시되었다.¹⁷⁾ 과도기와 프

15) 김일성, 『김일성전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북한은 역사 다시쓰기를 통해 1947년 2월 민주개혁 시기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가는 과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출간된 북한의 역사서도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다. 리영환 외,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16) P. Evans,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Sociological Forum*, Vol. 4, No. 4(1989).

롤레타리아 독재는 북한현대사의 분기점인 ‘1967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내적으로는 최후의 정치적 반대파인 이른바 갑산파를 숙청하고 김일성 중심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만들던 시점이었다.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대국 소련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을 수반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과도기론과 관련하여 두 대국 가운데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주체의 길을 걸어야 했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25일 조선로동당 사상사업부문 일군들에게 한 연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이 이론적 문제를 풀고자 했다.¹⁸⁾ 이 글의 첫머리는, 북한 내부에서도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김일성은 맑스의 과도기론이 노동자계급과 농민이 차이가 없는

17) 김태경·이정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2021), 1~28쪽.

18) 김일성, 『김일성전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했다고 하는 이른바 ‘5.25교시’의 문건으로 어떤 연구들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김일성의 이 글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 글에는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2002년 5월 25일 자 『로동신문』에 최승필의 기사,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5.25교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주체의 태양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과 5.25교시 40주년인 2007년 5월 25일 자 『로동신문』 사설, “사상사업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에서는 5.25교시의 글로,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를 지적했다. 김정은 시대인 2014년 5월 25일 자 『로동신문』 사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에서는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가 “고전적로작”으로 언급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에 대한 김정은의 강조를 담았다. 현재까지 출간된 『김일성전집』에는 “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맑스는 “짧은” 과도기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세계혁명의 곧 도래의 전제도 맑스가 가진 역사적 한계로 보았다. 자본주의 후진국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했던 레닌은 맑스를 계승하면서도,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어지는 기간을 과도기로 설정했다는 것이 김일성의 해석이었다.

김일성의 해석은, 후진국 사회주의혁명의 성격을 떨 수밖에 없는 ‘발전국가 북한’에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간을 분리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김일성은 세계에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과도기가 끝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대외적 적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사멸, 북한식 표현으로 국가의 “조락”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고, 따라서 강한(strong) 국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김일성의 용어를 빌리면 “우경기회주의” 편향을 보이는 ‘발전된 사회주의국가’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완료를 전제로 “전 인민 국가(all-people’s state)” 개념을 도입하면서,¹⁹⁾ 사회주의를 과도기 아니라 하나의 생산 양식으로 해석했다.²⁰⁾ 반면, “좌경기회주의” 편향을 보이는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산주의 높은 단계까지로 설정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타협은, 사회주의혁명 이후에도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앨 정도로 생산력 수준을 높여, 이른바 사회주의 완전승리까지

19) R. Hill, “The ‘All-People’s State’ and ‘Developed Socialism,’” in N. Harding(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20) 김윤환 편역, 『정치경제학 3: 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서울: 인간사, 1987).

를 과도기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한 공산주의의 정의인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질 정도의 생산력 수준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발전국가의 필요 때문에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국가의 조락은 대외적 적이 사라진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 이전에는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좌경적 편향과 우경적 편향을 동시에 쳐내는 김일성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였다.

1972년 12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유일사상체계를 유일지배체계로 전환하게끔 하는 국가주석 지위를 신설했고, 북한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정의했다. 유일지배체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제도화였다. 더불어 이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국가제도의 토대로 정식화했다. 북한은 1962년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제분업체인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가입을 거부했고,²¹⁾ 1967년 5월 특유의 과도기론을 만든 이후인 1967년 12월 “정부정강”으로 “자력갱생”을 북한식 발전국가의 전략으로 설정했다.²²⁾

유일사상체계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제도화와 경제발전전략으로서 자력갱생의 선택으로 표현된 북한의 국가론에 추가된 ‘북한적 현상’이 정치권력의 혈연세습이었다. 1967년 5월 유일사상체계가 만

21)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호(2021).

22) 김일성, 『김일성전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

들어질 때, 유일이 곧 수령 김일성으로 정의한 해석자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었다.²³⁾ 1974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사실상 '후계자'의 지위에 오른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라는 구호와 함께 출현했다.²⁴⁾ 김정일은 맑스와 레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산주의혁명리론은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시금 김정일은 시대에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이 되었다.²⁵⁾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왕조(王朝)와 같은 혈연세습의 불온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인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군주정과 대척에 있는 공화국으로 부르곤 하는 북한이 스스로 난제를 만든 것이다. 계보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 우연에 직면하여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해(解) 가운데 하나가 국가를 하나의 몸, 즉 유기체로 만드는 담론의 생산이었다. 1970년대에 수령-당-계급-대중의 유기체를 생각했던 북한은,²⁶⁾ 1980년대에 들어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가 기능적으로 대표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정식화했다. 1986년 7월 김정일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주장했다.²⁷⁾ 인민대중은 당의

23) 리영환 외, 『조선통사(하)』.

24)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25) 김태경·이정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

26) 철학연구소 실 역사적유물문연구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27) 김정일,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됨으로 ‘영생(永生)’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논리였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즉 수령의 교체였다. 1994년 7월 수령 김일성의 사망한 직후인 같은 해 11월 김정일이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다시금 강조했다.²⁸⁾

국가 유기체론은, 북한만의 고유 현상이 아니다.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에 이르는 길에서 12세기 서양 중세에 등장한 유기체적 국가론은, 부분들의 단순한 합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독립된 전체 또는 통일체로서 국가를 사고했다.²⁹⁾ 즉, 부분들의 이익을 넘어서는 통일체로서 국가의 공동선에 대한 모색이었다. 북한에서 유기체적 국가론을 도입한 것에 대해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세문화를 복원하려는 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있다.³⁰⁾ 김정은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사회학사』에서는, 생물학적 유기체론을 부르주아 사회과학으로 사회적 유기체론을 맑스주의 사회과학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국가론을 정당화한다.³¹⁾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생존의 논리가 되었다. 북한이 현재도 주창하는 일심단결의 구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우연과 필연의 접합들로 만들어진 북한적 국가론은 지속되고 있다. 첫째, 국가제도의 측면에서 독재는 계속되고 있다. 1972년 헌법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문화했던 북한은 1992년 헌

28) 김정일,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9) 김경희,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서울: 까치, 2018).

30)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북조선』, 남기정·서동만 공역(서울: 돌베개, 2002).

31) 김금남·박혜숙·리원철, 『사회학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법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독재의 성격을 강등했다.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로 과도기론을 수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최소강령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하향 조정된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김정은 시대의 2019년 헌법에서는 인민민주주의 독재하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국가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1992년부터 헌법에서 명문화된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 즉 당-국가의 정상화를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당·정·군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김정은 당 정치국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시대의 비상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당 제1비서와 같은 임시 호칭이 아니라 총비서라는 정상적 지위를 얻었다. 김정은 중국과 같은 당-국가 형태의 재창출을 통해 정치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둘째, 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국가전략은 자력갱생 노선으로의 회귀였다. 김정은 정권 출현 후 2개월여가 지난 2012년 2월 29일 북한은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합의는 파기되었고, 북한은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국가를 지향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선택했다. 안보분야 자력갱생 노선의 시작이었다. 경제분야에서 자력갱생 노선은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다시금 공식화되었다. 2018년~2019년 한반도 평화과정의 실패는, 북한에게 자력갱생

과 자금자족을 다시금 경제담론으로 만든 계기였다.

셋째, 북한의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국가론은 다양한 통치담론을 생산하는 원천이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론이다. 당의 영도적 역할을 기본이라 할 때, 이 유기체적 국가론은 수령과 대중 어느 한편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기 전인 같은 해 1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담론으로 제시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대신하여 사회주의정치의 기본방식으로까지 승격되었다.³²⁾ 2017년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을 전후로 하여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수령-당-대중에게 전략국가 지위와 같은 국가의 현재를 정당화하고 미래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포괄적 ‘호소’의 담론이다. 현재의 성과를 수령에게 미래의 의무를 인민에게 보내는 신호다.

3.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기원

2017년 11월 20일 『로동신문』 “정론”에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북한의 전통적 제일주의 담론 가운데 하나인 우리민족 제일주의 다음에 나란히 표기되었다. 두 제일주의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³³⁾

32) 2016년 당 규약에 처음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포함되었다. 김태경·이정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

33) 박옥경,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하늘을 나는 우리의 경비행기며 강원땅에 높이 솟은 발전소언제,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철쭉》상표양말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소나무》책가방으로부터 려명거리종합상업구 대매에 쌓인 《대봉산》구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주렁지는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들은 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눈부신 실천으로 구현해오신 그이의 위대한 손길에서 마련된 것들이다.

인민소비품도 언급되지만, 핵심 사례는 2017년의 성과로 기록한 “세계를 뒤흔든 《화성》로켓트충격과 수소탄의 폭음”이었다. 김정은은, “새형의 첨단로켓트개발을 위한 총설계가, 총제작자, 정치위원”으로 묘사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력갱생”을 통해 “강국”이 되는,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 나라, 전도가 양양한 진짜강국”으로 ‘자임’하는 것이, 김정은의 우리나라제일주의 실천이었다.

2017년은 북한 스스로 패권국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해였다. 북한은 2017년 3월 장거리미사일과 위성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대출력발동기지사분출시험”을 《3. 18혁명》, 7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실험을 《7. 4혁명》, 9월의 수소폭탄 실험을 《9월의 열핵폭풍》, 11월 29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실험을 《11월 대사변》 등으로 부른다.³⁴⁾ 특히 7월 4일의 《화성-14》형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려고 할 때”, 남북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에 발사된 미국 본토를

34)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상임리사회,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원수님』(동경: 조선신보사, 2018).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다.³⁵⁾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최대고각으로 발사한 후 김정은의 이름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³⁶⁾ 11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다시금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등장했다.³⁷⁾ 이번 순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먼저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새겨야 한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위신을 높일 주체들을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해 호명했다.

『로동신문』에서 구호로 ‘던진’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체계적 담론은, 2017년 12월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에 처음 등장했다. 왜 『민주조선』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는지를 묻게끔 한다. 『민주조선』이 당의 언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언론’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³⁸⁾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목으로 한 2017년 12월 『민

35) 김지영, “미국을 다스리기 위한 충격요법,” 『조선신보』, 2017년 7월 5일.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37)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38)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민주조선』을 통해 체계화되었음을 밝힌 연구는, 히라이 하사시, 『김정은 정권의 지도이념 변천』(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주조선』에 실린 기명기사 세 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12월 10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12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12월 27일)를 살펴보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로동신문』에서 던질 즈음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집단적 사전작업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민주조선』 2017년 12월 10일 자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란 제목의 기명기사가 실렸다.³⁹⁾ 전략국가론이 출현하기 직전이지만, 북한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의 향상이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으로 첫머리에 제시되었다. 이 기사 이후 반복적으로 북한 매체들에서 사용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국력”이 제일이라 생각하는 “신념”이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기사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내용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미래에 만들어야 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각오와 의지”로 정리되었다. 긍지와 자부심은, “수령의 위대성”, 지도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국가사회제도”, 핵강국·경제강국·문명강국으로

39) 황창만,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7년 12월 10일.

표현되는 “국력”이었다. 국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각오와 의지에는, “김일성, 김정일조국, 영광스러운 김정은조선”의 건설, “사회주의강국”의 건설, 인민의 “영웅적 희생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이 포함되었다.

『민주조선』 12월 16일 기명기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정의했다.⁴⁰⁾ 애국에 대한 호소로, 그 기사에 따르면 “애국은 곧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을 의미했다. 『민주조선』 12월 27일 기명기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업적”의 옹호 고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김정은의 “사상과 령도”의 수용,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 등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⁴¹⁾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2년 김정은 시대 첫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한 ‘강성국가’ 건설과 2017년 12월에 출현한 ‘전략국가’를 연결하는 다리였다.⁴²⁾ 강성국가의 구체 형태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가운데 군사강국으로서의 모습을 핵무력완성 선언 직후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미화하고 그다음 핵국가와 동의어이자 확장적 의미를 가지는 전략국가를 내세운 것이다.⁴³⁾ 2017년 12월 21일 김정은은

40) 김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민주조선』, 2017년 12월 16일.

41) 김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민주조선』, 2017년 12월 27일.

42) 김정일 시대의 강성대국 목표를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첫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성국가 건설로 낮추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설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년 1월 1일.

43) 이정철, “북한의 전략국가 지위론과 한반도 리스크관리,” 『역사와 현실』, 제123호(2022).

조선로동당 세포위원장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무력 발전이 “세계정치 구도와 전략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전략국가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⁴⁴⁾ 2017년 11월 북한의 핵무력완성 선언을 전후로 하여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군사강국에 도달한 시점에서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4.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전개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평창올림픽·페럴림픽 언급하며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북한 매체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적극 소환하지 않았다.⁴⁵⁾ 한반도 평화과정의 전개는 북한에서 민족보다 국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담론의 약화를 가져 왔다. 물론 전략국가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1주일 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언급되었다.⁴⁶⁾ 즉, 북한은 핵국가 지위를 선언하

44)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12월 22일. 이후 북한에서는 전략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세계정치구도변화와 국제정세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정의했다. 변정범,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45)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김정은의 실천으로 정리하는 모양새는 2018년 1월 1일 『로동신문』에서도 반복되기는 했다. “2018년 신년경축공연 <조선의 모습> 진행,”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46)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 『동향과 전망』, 제99호(2017), 83~121쪽.

고 비핵화를 핵군축으로 정의하며, 한반도 평화과정에 참여하고자 했다. 김정은은 판문점선언 서명 직후의 연설에서 북한판 한반도 민족의 정의인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언급했다.⁴⁷⁾

2018년 한반도 평화과정 속에서 북한은 핵능력 제고로 간주될 수 있는 직접적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2018년 『로동신문』에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목’으로 하는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⁴⁸⁾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과정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시대담론으로 ‘밀기로’ 했던 것처럼 보인다. 단, 북한 최고 권위의 매체인 『로동신문』이 아니라 비주류에 가까운 매체를 통해서였다.

2017년 12월 『민주조선』에 등장한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해석을 ‘받은’ 매체는 여성용 대중잡지의 성격을 띠는 월간 『조선여성』 2018년 2월호였다. 저자가 명기되지 않은 우리국가제일주의 해설이 ‘박스기사’의 형태로 실렸다.⁴⁹⁾ 『민주조선』에 실린 기사의 ‘반복’이었다. 현재의 “공지와 자부심”, 미래의 “각오와 의지”가 반복의 핵심어들이었다. 2017년 『민주조선』에서 나온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에서처럼,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는 “수령님” 김일성, “장군님” 김정일, “최고령도자동지” 김정은을 받드는 것이었다. 실천방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자강력제일주의”였고, “국

47) “[판문점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표 전문,” 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427207100001>(검색일: 2023년 12월 16일).

48) 표윤신·허재영,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50쪽.

49) “우리 국가제일주의,” 『조선여성』, 제2호(2018), 24쪽.

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상태가 우리나라제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었다. 『조선녀성』에 실린 이 글은,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주의들의 질서 속에 우리나라제일주의를 배치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정의가 『조선녀성』의 “주체사상원리해설” 부분에 게재되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후, 김정은 다음의 직책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가 2018년 4월 김정은이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가 된 6주년을 기념한 중앙보고대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와 함께 우리나라제일주의를 김정은의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리론”으로 치켜세웠다.⁵⁰⁾ 최룡해에게 자강력제일주의와 우리나라제일주의는 “국력”의 제고와 연결된 구호였다. 『조선녀성』 2018년 6호는 다시금 2017년 12월 『민주조선』의 기사를 다른 저자의 이름으로 썼다.⁵¹⁾

『조선녀성』을 통한 『민주조선』 기사의 답습은, 학술지에 가까운 『철학, 사회정치학연구』로 이어졌다. 김정은의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야 합니다”가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었다.⁵²⁾ 북한 특유의 수령-당-대중을 한 몸으로 연결하는 유기체적 국가론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조국의 품은 곧 수령의 품”

50) 최룡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18년 4월 12일.

51) 원길성,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조선녀성』, 제6호(2018); 최영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조선녀성』, 제7호(2018).

52) 2018년 6월에 발간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2호에는 박사 부교수 서성일의 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 실렸다. 김정은과 우리나라제일주의를 직접 연결하는 최초의 글 제목이었다.

이라는 동의어를 만들었다.⁵³⁾ 즉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근본핵”은 “우리 수령제일주의”였다.⁵⁴⁾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핵국가의 부상, 발전국가의 재부상과 같은 “국가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였지만,⁵⁵⁾ 국가의 부상은 ‘수령의 부상’과 등치될 씨앗을 담고 있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민주조선』, 『조선녀성』,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등의 매체에서 생산한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에서는, 수령-당-대중에서 상대적으로 당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았다.

5.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공식화

2018년 11월 9일 『로동신문』 1면 “사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에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다시금 등장했다.⁵⁶⁾ 2018년 9월 남북정

53)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54)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55)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56) 2018년 하반기 『로동신문』의 우리국가제일주의 언급은, “국제친선관람관 개관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로동신문』, 2018년 8월 26일; 명주혁,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중요하요구,” 『로동신문』, 2018년 9월 18일. 국호, 국기, 국가, 국어, 국화 등과 같은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술어의 형태로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궁지와 자긍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글도 등장했다. 리강호,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에 대해서는,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참고. 2018년 12월 13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제로

상의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지만, 그 선언에서 합의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재해제의 난망으로 자력갱생을 다시금 소환한 이 사설에서 우리나라제일주의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등장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 양양한 전도와 미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주체조선, 조선민족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조국의 위상을 더 높이 떨치려는 자각과 의지, 이것이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제일주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봉쇄” 속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구현하자는 내용을 담은 사설이었다.

2018년 12월 17일 김정일 7주기를 다룬 『로동신문』 사설에서 우리나라제일주의는 마침내 우리민족제일주의와 병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등장했다. 김정일에국주의가 핵심어이기는 했지만, 『로동신문』 사설은 우리나라제일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⁵⁷⁾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한 토론회에서도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교수 홍태연이 우리나라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사상전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로동신문』, 2018년 12월 14일.

5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년 12월 17일.

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본취지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매진하자는데 있다.

최초 2017년 12월 『민주조선』에서 체계화할 때 등장했던 핵심어 현재의 “공지와 자부심”, 미래의 “의지”를 반복했다. 전략국가라는 정치군사강국의 공지와 자부심,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 우리나라제일주의였다.⁵⁸⁾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 27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 12월 24일 『로동신문』 사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주체조선의 만년재보이다”에서도 우리나라제일주의가 등장했다.

『민주조선』, 『조선녀성』,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등에서 1~2쪽 정도로 정리되었고 『로동신문』에 간헐적으로 구호처럼 출현했던 우리나라제일주의가 2018년 12월에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에서 6쪽에 걸쳐 도식적으로 정리되었다.⁵⁹⁾

주체조선의 “공지와 자부심”의 첫째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공지와 자부심”이었다. 우리나라제일주의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했다. 수령복의 핵은 국가의 “강성번영”이었다. 둘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을 하고있는 공지와 자부심”이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동의어였다. 셋째, “인민대중

58) 조학철,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을 만방에 떨친 역사적인 해,” 『로동신문』, 2018년 12월 31일.

59)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4호(2018).

중심의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이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넷째, “막강한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자력갱생 노선에 입각한 경제건설이 언급되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한 미래구상의 처음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였다. 조국은 곧 수령이었다. 둘째,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조국을 “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 각오와 의지”였다. 인민에게 “만리마속도창조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인민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였다.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해 인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즉, 2018년 말에 이르면,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인민이 가져야 할 “사상적무기”가 되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공식화’는 김정은 이름으로 발표된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서였다.⁶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김정은이 정의한 신념으로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경제건설의 의지

60)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이며, 애국이었다.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란 제목의 기명기사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상감정”이 되었다.⁶¹⁾ 이 기사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국제관계에서 타국에 대한 배타로 해석될 염려도 있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민족리기주의”가 아니라 타국의 자주권과 이익도 존중하는 담론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로동신문』은 2019년 1월~2월에 사실과 기명논설의 형태로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⁶²⁾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김정일애국주의에 주체사상이 추가되었다.⁶³⁾ 사상감정으로서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위상제고였다. 2019년 1월 21일 『로동신문』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에서는 기존의 정의에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서로 뗄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전반에 드높은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이 차넘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중요내용”은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 김정은정권을 정당화하는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였다.⁶⁴⁾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과업”에서는, 우리국가제일

61) 김성남,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62) 2017년 12월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체계화한 『민주조선』도 『로동신문』과 함께 우리국가제일주의의 제목을 가진 기사들을 실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9년 1월 12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민주조선』, 2019년 1월 15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민주조선』, 2019년 1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 『민주조선』, 2019년 1월 18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민주조선』, 2019년 1월 26일.

63) 김용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와 등치되었다.⁶⁵⁾ 국가에 대한 강조가 당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듯,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조선로동당의 영도도 언급되었다.⁶⁶⁾ 우리나라제일주의의 “방도”는 “국풍”의 수립이었다. 국풍은 생활양식, 풍속으로 정의되었고, 국기와 국장, 애국, 준법기풍, 국화와 국수, 국조,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을 통해 인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우리나라제일주의의 방도였다.⁶⁷⁾

『로동신문』을 통한 우리나라제일주의의 체계화, 공식화 작업의 종합이 2019년 6월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에 실린 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이었다.⁶⁸⁾ 이 글은, 『로동신문』에 등장한 우리나라제일주의에 관한 기사의 순서와 같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내용”, “우리 국가

64) 명주혁,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9년 1월 22일.

65) 유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승화발전,” 『민주조선』, 2019년 3월 2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이다,” 『로동신문』, 2019년 5월 4일.

66) 장임향,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 『로동신문』, 2019년 1월 29일.

67) 홍진혁,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로동신문』, 2019년 2월 20일.

68) 박혜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2(2019). 우리나라제일주의는, 잡지 『천리마』, 『조선녀성』, 『인민교육』, 『예술교육』, 『사회과학원보』 등에도 등장했다. 예를 들어, 황혜경,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 『천리마』, 제5호(2019); 최향,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소학교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제6호(2019).

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의 목차를 가지고 있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로동신문』에 실린 우리나라제일주의에 관한 기사 가운데 사설을 제외하고는 기명논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언어와 표현으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의 글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에서 간행한 『사회학사』의 공동 저자였던 교수 박사 박혜숙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사실상 집단작업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절’이었을 것이다.

6. 우리나라제일주의에서 우리수령제일주의로

2021년 4월 2일 자 『로동신문』 1면 “론설”은 우리나라제일주의와 우리수령제일주의의 등치를 예비했다.⁶⁹⁾ “수령이 위대하여야 조국도 빛나고 인민도 강해진다”는 주장이 요지였다. 2021년 4월의 시점은,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재확인한 이후 3달 정도가 지난 후면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사실상 대외관계를 극단적인 봉쇄정책을 시행할 때였다.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조선로동당의 수반이자 총비서의 역할을 하는 당 중앙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이,⁷⁰⁾ 우리나라제일주의에서 우리수령제일주의로 가는 길을 놓은 듯했다. 『로동신문』 “론설”은 김정은을 “유일중심”으로 재확인했다.

곧이어 『로동신문』은 우리나라제일주의 담론 탄생의 역사를 다시

69)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입니다.” 『로동신문』, 2021년 4월 2일.

70) 김태경·이정철·양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 『분석과 대안』, 제6권 1호(2022).

썼다. 우리나라제일주의가 “조선로동당이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었다.⁷¹⁾ 2021년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북한은 당 중앙의 “존엄사수”를 외교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제시한 바 있었다. “국위제고”, “국익수호”가 그다음이었다. 같은 날인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자에 실린 “정론: 인민의 심부름꾼당”도 김정은 정권 10년이 당-국가의 정상화 과정이었음을 알렸다.⁷²⁾ 즉, 우리나라제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이 주도한 당-국가 정상화의 산물로 재해석했다.

이즈음 우리나라제일주의는 역사적 표준인 ‘시대’를 규정하는 담론으로 승격되었다.⁷³⁾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권력의 공고화를 알리는 지표가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였다. 전략국가 지위를 자임하면서, 북한은 국가의 “존엄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를 선포했다. 그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의 건설자가 바로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었다.⁷⁴⁾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구현한 김정은의 “사상리론업적”이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⁷⁵⁾ 김정은의 업적을 언급한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 기사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실험 기사와 나란히 배치되

71)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72) 동태관, “정론: 인민의 심부름꾼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73)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 『로동신문』, 2021년 5월 15일.

74)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기사인 백영미·리홍철,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 『로동신문』, 2021년 9월 7일.

75)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사상리론업적,” 『로동신문』, 2021년 9월 13일.

었다.⁷⁶⁾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는, 『로동신문』 “정치용어해설”로 배치될 정도가 되었다.⁷⁷⁾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도 정치용어해설에 포함되었다. 2022년 9월 1일 자 『로동신문』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자”에서 내용의 일부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라고 전환적 발언을 한 후, 영도자로 불리던 김정은에게 수령의 지위를 주고자 했다. 북한의 대표적 정론 작가 동태관은 2022년 9월 3일 『로동신문』 1면에 게재한 정론 “세상에 단 하나: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심장에 새겨보며”에서 “우리 수령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표현을 사용했다.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는 제목의 기사가 2022년 9월 7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었다.⁷⁸⁾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우리수령제일주의가 되는 것이 “엄숙한 운명의 진리”라는 기이한 선언과 함께였다.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우리수령제일주의를 통해 북한은 인민에게 수령과 혼연일체가 되어 ‘애국’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⁷⁹⁾ 김정은은 “절세의 애국자”로 호명되었다.⁸⁰⁾ 결국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의 탄생은

76)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 진행,” 『로동신문』, 2021년 9월 13일.

77) “우리 국가제일주의,” 『로동신문』, 2022년 6월 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로동신문』, 2022년 6월 12일.

78) 이 기사의 영문판에서는, 우리수령제일주의를 ism이나 principle을 사용하지 않고 “Belief in Excellence of Our Leader”로 표기했다.

79)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 『로동신문』, 2022년 10월 2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자,” 『로동신문』, 2022년 11월 18일.

80) 주창선, “자존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애

“위대한 수령” 김정은의 영도 덕이었다.⁸¹⁾ 북한의 전통적 구호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이 김정은 영도와 맞물리며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2023년 현재 북한이 공식화한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의 핵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전략국가의 자력갱생 노선으로 정리된다.⁸²⁾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선택을 한 것도 우리국가제일주의, 우리수령제일주의의 성과가 되는 형국이다.⁸³⁾ 러시아로부터 핵국가 지위의 ‘인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국가의 ‘경제적 이익’ 생산을 위한 계기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⁸⁴⁾

7.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남북관계: 결론에 대신하여

김정은 시대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통해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사상감정”이다. 선 강국건설 후 국제적 인정으로 읽히는 시대담론이다.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을 추구하겠다는 북한은, 자신이 열위에 놓이

국가,” 『로동신문』, 11월 19일.

81) 서성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의 근본원천이다,” 『로동신문』, 2023년 5월 25일.

82) 김철룡,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이 안아온 위대한 시대이다,” 『로동신문』, 2023년 8월 13일.

83) 김철룡,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23일.

84) Vladimir Putin’s Interview With Rossiya Segodnya Chief Kiselev, 13. 03. 2024. <https://sputnikglobe.com/20240313/vladimir-putin-holds-interview-with-rossiya-segodnya-chief-kiselev-1117297434.html>.

는 비대칭적 국제관계의 형성을 ‘인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인정은 비인정(non-recognition)이라 생각할 것이다.⁸⁵⁾ 북한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을 때, 안보와 경제의 측면에서 강국의 건설이 평등한 상호인정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추론의 형태의 문장을 쓰는 이유는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에 대외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국력의 차이가 생산하는 비대칭적 국제관계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북한 특유의 인식의 소산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소국이 핵무기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행국을 북한은 전략국가로 포장했고, 인민들에게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사상감정으로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미래로 제시하는 군사강국의 토대로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호소는, 전형적인 근대 초기의 부국강병의 논리이고, 서로 싸우며 닳아가는 불편한 모습이다.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퇴행적이기는 하지만, 평등한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북한 특유의 인정게임에서 상호인정으로 가게끔 하는 국내적 토대 마련을 위한 담론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의도가 성공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인민의 애국을 동원하여 북한이란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특수한 국제관계인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일원일 수 있는 남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북한의 자국 중심적 사고의 일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아니라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시대담론으로 만들고자 했

85) E. Ringmar, “The Recognition Game: Soviet Russia Against the West,” *Cooperation and Conflict*, Vol.37, No.2(2002), pp.115~136.

을 때, 한국에서의 비판적 반응 가운데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두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⁸⁶⁾ 김정은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통해 “영구 분단”을 도모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였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핵국가의 자력갱생을 모색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었다.⁸⁷⁾

2021년 6월경 북한이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이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⁸⁸⁾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남북관계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등장하며,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한반도 두 국가를 지향하는 김정은 시대의 담론이 아닌가하는 혐의의 제기였다. 물론,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의 전문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업이 남아 있기는 했다.

한국 내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개입했다. 2021년 6월 7일 『조선신보』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킨다”는 기사에서,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의 통일 지향은 기사에 붙어 있는 문구처럼,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에도 일관한 노선과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신보』가

86) 이제훈, “김정은의 평양시간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영구 분단을 꿈꾸나,” 『한겨레신문』, 2021년 5월 31일.

87)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한국정치연구』, 제32권 1호(2023).

88) 북한의 전국적 혁명론은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절로 대체되었다.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의 삭제였다.

북한을 대신해 우리나라제일주의에 담긴, 우리나라제일주의가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을 2021년 6월의 시점에 제공한 것이다.

『조선신보』 보도의 핵심은 “선 힘”의 구축, 후 통일로 정리할 수 있다. 상호인정을 기초로 진행되는 대화와 협상 이전의 단계로 강력한 국력의 제고를 설정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과정의 좌초로 만들어진 한반도 인정게임의 구조변환이었다. 2022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밝혔을 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⁸⁹⁾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표현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김여정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라고까지 말했다. 남북관계의 향방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김여정의 ‘따로 살자’는, 북한 맞춤법에서 비아냥거림의 뜻을 담기도 하는 겹화살괄호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이란 호칭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이나 일본을 언급할 때 북한 매체는 겹화살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여 전군 지휘훈련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한 《대한민국》이었다.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극단적 표현 속에 《대한민국》이 등장했다.⁹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전술핵타격훈련”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격화 속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상대방인 대한민국을 인정하지만 소멸을 목표로 하는 ‘부정

89)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19일.

90) 이제훈, “김정은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한겨레신문』, 2023년 8월 31일.

적 인정'이었다.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가 낳은 남북관계의 현주소였다.

결국, 시대담론으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선택한 김정은 정권은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재정의했다.⁹¹⁾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남조선놈”, “남조선것들”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민주든 보수든 북한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 노선을 걸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공포’를 느껴 왔다는 소회다.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생산될 다음 담론 가운데 하나는,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의된 민족담론일 것이다.

■ 접수: 3월 13일 / 수정: 4월 12일 / 채택: 4월 15일

9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금남·박혜숙·리원철, 『사회학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김일성전집 1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일성전집 3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a).
- _____, 『김일성전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1b).
-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김정일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김정일선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현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리해』(평양: 평양출판사, 2016a).
- _____,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입문』(평양: 평양출판사, 2016b).
- 리영환 외,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 박득준·김적봉 엮음,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백명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김정철, 201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4호.
- 최원철·리성환·박길성, 『철학연구논문집 1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2) 논문

- 김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 『민주조선』, 2017년 12월 16일.
- _____,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민주조선』, 2017년 12월 27일.

박혜숙,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제2호(2019).

변정범, “전략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서성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2호(2018).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제3호(2018).

원길성,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조선녀성』, 제6호(2018).

최영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조선녀성』, 제7호(2018).

최향, “우리 국가제일주의교양을 소학교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인민교육』, 제6호(2019).

황혜경,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 『천리마』, 제5호(2019).

3) 신문

김성남,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년 1월 8일.

김승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로동신문』, 2019년 5월 4일.

김용일,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로동신문』, 2019년 1월 20일.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9년 1월 1일.

김지영, “미국을 다스리기 위한 충격요법,” 『조선신보』, 2017년 7월 5일.

김철룡,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이 안아온 위대한 시대이다,” 『로동신문』, 2023년 8월 13일.

_____,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로동신문』, 2023년 9월 23일.

동태관, “정론: 인민의 심부름꾼당,” 『로동신문』, 2021년 5월 14일.

_____, “세상에 단 하나: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심장에 새겨보며,” 『로동신문』, 2022년 9월 3일.

리강호,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 명주혁,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중요한 요구,” 『로동신문』, 2018년 9월 18일.
- _____,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8년 1월 22일.
- 박옥경,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년 11월 20일.
- 백영미·리홍철,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위인,” 『로동신문』, 2021년 9월 7일.
- 서성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지닌 필승의 신심의 근본원천이다,” 『로동신문』, 2023년 5월 25일.
- 유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 장임향,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 『로동신문』, 2019년 1월 29일.
- 정순학,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로동신문』, 2018년 1월 16일.
- 조학철,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을 만방에 떨친 력사적인 해,” 『로동신문』, 2018년 12월 31일.
- 주창선, “자존과 번영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로동신문』, 2023년 11월 19일.
- 최룡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 2018년 4월 12일.
- 최칠남·동태관·전성호, “정론: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 표윤신·허재영,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문화와 정치』, 제9권 4호(2022), 37~62쪽.
- 황창만,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7년 12월 10일.
- 홍진혁,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로동신문』, 2018년 2월 20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경희,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서울: 까치, 2018).

김윤환 편역, 『정치경제학 3: 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서울: 인간사, 1987).

레닌, V. I.(Vladimir Ilyich Lenin), 『국가와 혁명』, 김영철 옮김(서울: 논장, 1988 [1917]).

마르크스, 칼(Karl Marx)·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김재기 편역(서울: 거름, 1988[1848]).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남기정·서동만 공역(서울: 돌베개, 2002).

최순영, 『니체와 도덕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2).

2) 논문

강혜석,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재건설: 주체, 우리 식, 우리 민족제일주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2017), 65~96쪽.

_____, “북한의 민족건설과 두 개의 ‘민족론’: ‘통일론’과의 긴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3집 1호(2019a), 127~155쪽.

_____,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b), 309~346쪽.

_____, “김정일 시대 북한 민족주의의 진화: <주체성과 민족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3집 1호(2020), 43~74쪽.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 북한적 핵 개발의 이유와 김정은 정권의 핵 담론,” 『동향과 전망』, 제99호(2017), 83~121쪽.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139~177쪽.

김태경,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한국정치연구』,

- 제32집 1호(2023), 197~229쪽.
- 김태경·이정철,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2021), 1~28쪽.
- 김태경·이정철·양혜,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 『분석과 대안』, 제6권 1호(2022), 115~162쪽.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3호(2013), 187~212쪽.
- 김효은,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2021), 31~67쪽.
- 남종호, “중국 정치 이데올로기 변화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1호(2009), 191~211쪽.
- 마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6호(2020), 71~102쪽.
- 박아름, “1962년 북한의 ‘사회주의 국제분업’ 이탈 분석,” 『역사문제연구』, 제45호(2021), 445~483쪽.
-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색: 우리 국가제일주의,” 『장신논단』, Vol.51, No.5(2019), 355~380쪽.
- 이정철, “북한의 전략국가 지위론과 한반도 리스크관리,” 『역사와 현실』, 제123호(2022), 3~20쪽.
-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4(2019).
-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2020), 30~38.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ism]이 [-주의(主義)]로 번역되기까지,” 『비교일본학』, 제28집(2013), 217~239쪽.

3) 신문

이제훈, “김정은의 평양시간과 우리 국가제일주의, 영구 분단을 꿈꾸나,” 『한겨레신문』, 2021년 5월 31일.

_____, “김정은 전쟁 발생 시 남반부 전 영토 점령,” 『한겨레신문』, 2023년 8월 31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상임리사회, 『21세기의 태양 김정은원수님』(동경: 조선신보사, 2018).

『중국공산당 규약』(북경: 민족출판사, 2022).

Foucault, M., “Nietzsche, Genealogy, History,” in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Hill, R., “The ‘All-People’s State’ and ‘Developed Socialism,” in N. Harding(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Stalin, J., “The Foundations of Leninism,” *Works 6*(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7).

2) 논문

Evans, P.,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Sociological Forum*, Vol.4, No.4(1989), pp.561~587.

Ringmar, E., “The Recognition Game: Soviet Russia Against the West,” *Cooperation and Conflict*, Vol.37, No.2(2002), pp.115~136.

3) 신문

中央档案馆党史资料研究室, “介绍毛泽东同志有关理论学习问题的几件手稿,” 『人民日报』, 1979年 12月 25日.

张万年·迟浩田, “功绩显赫铭天地 德高望重昭日月,” 『人民日报』, 2000年 2月 1日.

A Genealogy of North Korea's 'Our State-First Principle'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ourse of 'Our State-First Principle', which emerged in the sixth year of Kim Jong Un's rule. In the article I take a 'genealogical' approach to the process of how the term emerged as a slogan and became systematized and formalized as an ideology. After appearing in *Rodong Sinmun* (『로동신문』) before and after North Korea's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force in November 2017, it was systematized in *Minju Joson* (『민주조선』), the org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he Cabinet before and after North Korea's declaration of a strategic state in December 2017. Dur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it was resystemized in non-mainstream media such as the journal *Joson Nyosong* (『조선녀성』),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Politics*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and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김일성종합대학학보』). Eventually, in January 2019, it became the official discourse in *Rodong Sinmun* under Kim Jong Un's name. Since then, it has become

the defining discourse of the Kim Jong Un regime as ‘Era of Our State-First Principle’. Based on North Korea’s unique organic state theory, the term has become synonymous with the ‘Belief in the Excellence of Our Leader’ (우리수령제일주의). In the article’s conclusion, I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State-First Principle for the North Korean version of the two-state theory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Our State-First Principle, Our Nation-First Principle, Belief in the Excellence of Our Leader, Strategic State, *Rodong Sinmun*, *Minju Josen*, *Joson Nyosong*,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Politics*,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